

## 이익정 묘 출토 망건의 소재 및 구성법에 관한 연구

채 옥 자\* · 유 효 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사\*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생활과학연구소 패션기술센터 교수\*\*

### A Study of the Materials and Composition of *Mang-geon* Excavated from *Ikjeong Yi's* Tomb

Ok-Ja Chae\* · Hyo-Seon Ryu\*\*

Curator, Seok Ju-seon Memorial Museum,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FTC cente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9. 8. 3, 심사(수정)일: 2009. 9. 16, 게재확정일: 2009. 9. 23)

#### ABSTRACT

The structure and material of Mang-geon from excavated tomb of Yi-ikjung in 1700', Seoul, were analyzed and identified. The Mang-geon was worn by Yi-ikjung when it is found. Until now, it is know that Mang-geon is made of horsehair, but it find out to be made of silk threads. This result verified the presence of 'sa-kyul Mang-geon' which been estimated to used only for document records. This proves Mang-geon has been produced in the silk threads as well as horsehair and human hair. The front and back of the Mang-geon was made of intertwisted silk threads by using simple linking method. Dang is constructed of looped linking method. The size of Dang is wider, which give greater flexibility to wrap top of head.

Key words: Mang-geon:headband(망건), excavated costumes(출토복식), horsehair-woven headband(마미망건), intertwisting(연연법)

## I. 서론

출토된 많은 복식류 유물이 조사·연구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의복류이며 관모와 수식 등의 유물은 그 예가 드물다. 그리고 관모 등의 복식관계 유물이 출토되어도 그것은 수의용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으로 실제 착용했던 것은 극히 알려져 있지 않다. 출토되어 보고된 남자의 관모나 수식류는 주로 소모자, 망건, 복건, 사모 등이 대부분이다.

망건은 조선시대 성인 남성이 상투를 틀고, 머리 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에 두르는 것으로 대한제국 이후 망건을 폐지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sup>1)</sup> 명에서는 관의 용도도 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감발을 위한 것으로, 그 위에 정식의 관을 쓰게 되어 있고 관자·풍잠·동곳 등으로 장식하였는데, 그 재료에 의해 관폼 및 계급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sup>2)</sup>

본 연구는 묘주가 착용하였던 망건을 대상으로 그 구성 재료와 구성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유물은 분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당시 말총으로 된 망건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조사과정 중 실(絲)로 밝혀져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에 나타난 망건의 소재와 특징에 대해 고문헌과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상례연해 등의 예서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유물의 구성소재를 현미경적 관찰을 통해 감별하고 그 구성방식을 조사하였다.

## II. 본론

### 1. 문헌에 나타난 망건

문헌에 나타나 있는 망건에 관한 기록을 일상용과 상장례용으로 구별하여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재까지 출토되어 보고된 망건유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三才圖會』에는 실을 엮어 머리를 묶는 것을 망건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sup>3)</sup> 『蜆菴瑣語』에는 '망건의 제도는 명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명 태조가 神樂觀에 미행했다가 道士가 고치실로 작은 망을 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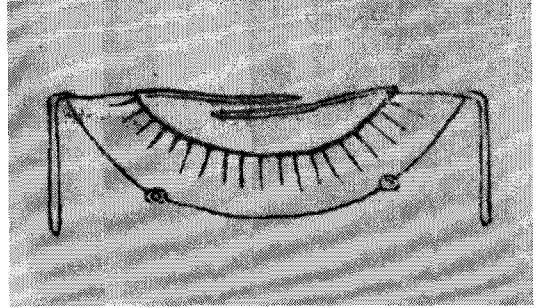
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도사가 머리털을 묶어 매는 데 쓰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網의 아가리는 비단으로 邊을 만들었는데 邊子가 많았고, 邊子의 兩幅 조금 뒤쪽에 두 개의 작은 圈子의 장식을 달았는데 금과 옥을 사용하였으며 어떤 것은 구리와 주석을 써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sup> 또한 '망건은 처음에는 명주실로 하다가 萬曆(1573-1620)년간에 와서야 비로소 머리카락, 말총을 실 대신 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제도를 따랐을 것이지만 지금 상고할 길이 없고 그 근본을 따져보면 그게 바로 緜(緜) 제도이다.'<sup>5)</sup>라 기록하고 있어 망건이 말총이나 머리카락 이외의 소재인 실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망건에 대한 실록의 기록에는 『세종실록』 2년(1420년) 경자조에 옥관자를 갖춘 馬尾網巾을 명나라 사신에게 증여한 기록이 있고,<sup>6)</sup> 1488년(성종 19)에 왔던 명나라 사신 董越의 「朝鮮賦」에도 조선의 망건은 모두 말총으로 만든다고 적고 있다. 또한 『성종실록』 22년(1491년)에는 임금의 망건을 수선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sup>7)</sup> 망건이 주로 말총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조실록』 21년(1643년)에는 제주에서 구한 망건을 正朝使 일행이 실고 가려던 기록이 있다.<sup>8)</sup>

위와 같이 일상적인 망건이 말총으로 주로 제작되었던 것과는 달리 상례시에는 주로 검은 색이나 아청색과 같은 짙은 색의 직물로 만든 망건을 사용했다. 『喪禮諺解』에는 '망건은 囊할 때 쓰나 「問解」에 冒段으로 만든다.'<sup>9)</sup>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림 1>이다. 『靑莊館全書』에는 '우리나라도 응당 중국을 따라 실을 사용하고 말총을 사용했을 것이나 상고할 수 없다. 지금에는 말총만을 사용하는데 시체에 黑緞을 망건대신 사용하고 상제만은 布로 대신한다.'<sup>10)</sup>고 기록하여 평상시 사용하던 망건의 소재와 상례시에 사용하던 망건의 구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五禮儀』에는 '검은 깃으로 한다하니 아무것이라도 검은 것으로 만들라'<sup>11)</sup>고 기록되어 있어 색상에는 제한을 두었으나 그 소재에는 큰 제약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형태에 관해서는 『四禮便

『喪禮傳<sup>12)</sup>』에는 '제도는 駮網巾과 같다'고 하여 말총으로 만든 평상시의 망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四禮便覽』土冠禮<sup>13)</sup>에는 '사는 머리를 싸고 상투를 싸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검은 비단을 사용하여 길이는 육척이다. 겹으로 만든다. 정수리에는 앞이마 위에 마주대어 상투를 감는다. 옛사람은 남녀가 통용했다. 지금도 남자는 망건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곧 남은 제이다'라 하여 그 크기와 착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망건 도해, 國朝喪禮補編



〈그림 1〉 망건도, 喪禮諺解, 卷2, 3.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왕의 염습의대 중 망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표 1), 『五禮儀』에는 자세한 기록 없이 망건으로만 기록하였으나 영조대에는 흑초망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조대에는 모단망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1〉 『조선왕조실록』중 王의 염습의대에 나타난 망건

왕	습
세종오례의	網巾
영조	黑綰網巾
정조	毛緞網巾

『國朝喪禮補編』에는 왕의 습용 망건은 아청색의 무문사를 사용하고 상단에는 자색의 겹실로 당겨 모으며 쌍관자는 은니로 그려 사용하도록 한 내용을 도해(그림 2)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sup>14)</sup>

『殯殿都監儀軌』에 나타난 왕의 염습의대에는 망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있으며(표 2)<sup>15)</sup>와 같다. 인조 『삼방의궤』에는 모단 2척 5촌을 사용하는데, 안은 대홍필단 1척, 영자는 자적사 1척을 사용하며 너비는 6촌으로 되어 있다. 영조는 아청수사를 사용하고 영자는 모단을, 관자는 니은을 사용하여 그린다고 되어 있으며, 순조는 검은 아청갑사, 내공은 다홍공단, 관자는 평소 사용하던 옥권을 쓴다고 되어 있다. 현종·철종은 니금으로 그린 관자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습용 망건은 말총이 아닌 짙은 색의 단, 사 등의 직물로 만든 것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실제 출토된 망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까지 출토되어 보고된 망건은 대부분 수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능창군과 이익정의 망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이 공단 등을 이용한 것이며 이것은 『국조오례의』 등의 예서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망건의 부속인 관자는 능창군과 이익정 그리고 홍희준의 망건에는 옥관자가 부착되어있고 이재극의 망건에는 관자로 보이는 구멍 뚫린 구슬이 있었다고 보고<sup>16)</sup>하고 있다. 이중 능창군과 이익정의 망건은 직물 소재의 망건이 아니며 수의용 직물 망건은 홍희준과 이재극의 망건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망건에는 관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예서의 기록대로 관자를 그렸거나 종이로 만든 것을 부착했기 때문에 확인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직물로 된 망건은 수의용으로 제작된 망건이며 직물 이외의 소재 즉, 말총이나 견사로 엮은 망건은 옥관자가 모두 부착되어있는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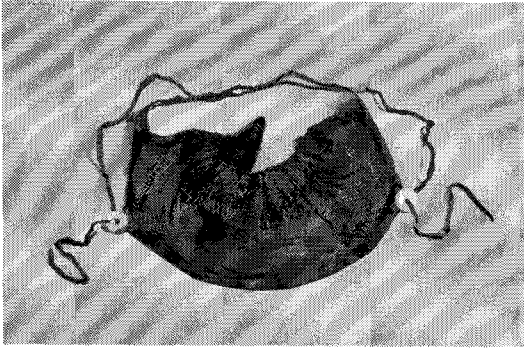
〈표 2〉 『殞殿都監儀軌』에 나타나 왕의 엄습의대

왕		목록	습
인조	儀註		網巾 代用皂羅
	殞殿三房	網巾一 冒緞二尺五寸, 內拱大紅疋緞一尺, 纓子紫的紗一尺廣六寸	
효종	儀註		網巾 代用皂羅
	殞殿三房	網巾	
현종	儀註		網巾 代用皂羅
	殞殿三房	網巾	
숙종	儀註		網巾 代用皂羅
	殞殿三房	網巾 鴉靑無紋紗半骨一尺五寸, 纓子次冒段長一尺廣六寸, 貫子畫成次 泥銀二分	
경종	儀註		網巾代用皂羅
	殞殿三房	網巾 鴉靑無紋紗半骨壹尺伍寸, 纓子次冒段長壹尺廣壹寸, 貫子畫成次泥金貳分	
영조	儀註		網巾 代用鴉靑紗
	殞殿三房	網巾一 鴉靑水紗, 纓子冒緞, 貫子畫用泥銀	
정조	儀註		網巾 代用皂羅
	殞殿三房	網巾一 表鴉靑甲紗	
순조	儀註		網巾 代用皂羅
	殞殿三房		網巾一 表鴉靑甲紗, 裏多紅貢緞, 貫子用常時所 [御環玉圈]
헌종	儀註		網巾 代用鴉靑紗
	殞殿三房		網巾一 表鴉靑甲紗, 裏多紅貢緞, 貫子其畫泥衾唐粉
철종	儀註		網巾 代用鴉靑紗
	殞殿三房		網巾一 表鴉靑甲紗, 裏多紅貢緞, 貫子其畫泥衾唐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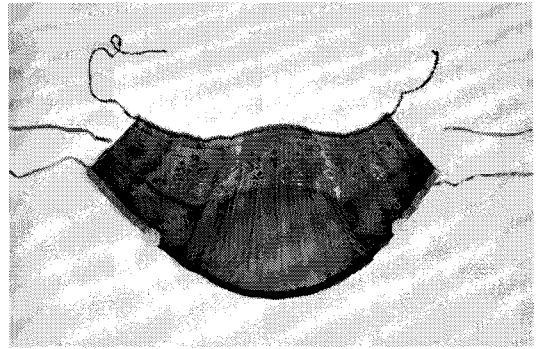
〈표 3〉 출토 망건 현황

번호	묘 주	소재	크기 (길이*너비/cm)	관자	출처
1	송호상 <sup>17)</sup> (1430~1490, 추정)	명주	60*13	-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연산송씨 출토복식
2	송희종(1520년대 추정)	무문단	58*10	-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연산송씨 출토복식
4	능창군 이전 <sup>18)</sup> (1599~1615)	말총	39.3	옥관자 1쌍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명품선
5	김여운 <sup>19)</sup> (1596~1665)	무문단	61*17	-	17세기 문관옷 이야기
6	최원립 <sup>20)</sup> (1618~1690)	공단	62.5*13	-	최원립장군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무관의 차림새
7	최 숙 <sup>21)</sup> (1636~1698)	공단	63*15	-	한국복식 14호
8	남오성 <sup>22)</sup> (1643~1712)	공단	59.5*11	-	남오성묘 축토복식
9	의원군 이혁(1661~1722)	공단	62*15	-	전주이씨묘 축토복식 조사보고서
10	탐릉군 이변 <sup>23)</sup> (1636~1731)	공단	69*16	-	한국복식1호
11	밀창군 이직 <sup>24)</sup> (1677~1746)	-	-	-	한국복식22호
12	이익정 <sup>25)</sup> *(1699~1782)	견사	55*12	옥관자 1쌍	한국복식 19호
13	홍희준 <sup>26)</sup> (1761~1841)	공단	65*9	옥관자 1개	한국복식 12호
14	이연웅(1818~1879)	공단	64.5*12	-	전주이씨묘 축토복식 조사보고서
15	이재극(1864~1931)	-	-	구슬관자 1쌍	전주이씨묘 축토복식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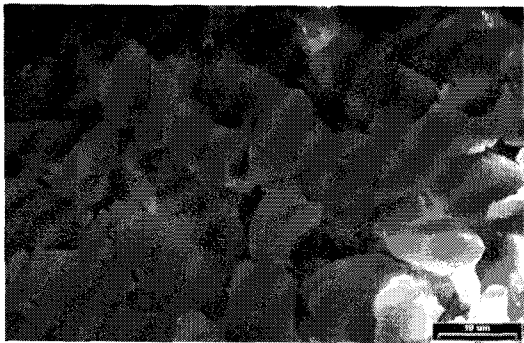
\* 본 연구의 대상유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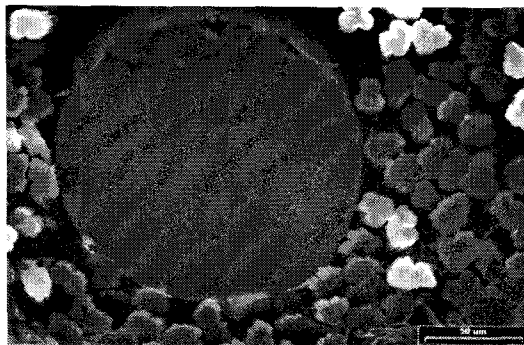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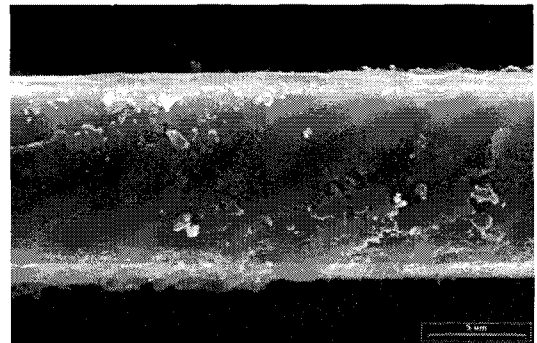
〈그림 3〉 이익정 망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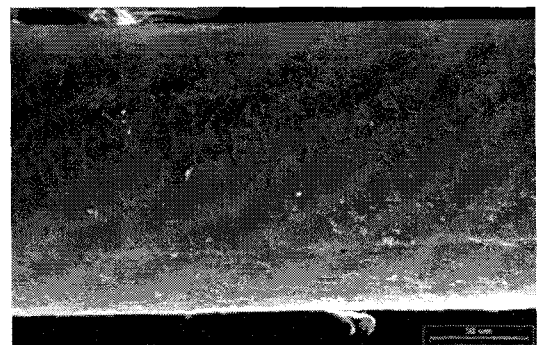
〈그림 4〉 능창군의 망건,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p. 85.



〈그림 5〉 이익정 망건에 사용된 소재의 SEM이미지(좌-단면, 우-측면)



〈그림 6〉 말총망건에 사용된 말총 SEM 이미지(좌-단면, 우-측면)



사실로 수의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실제 착용했던 망건으로 생각된다.

## 2. 이익정의 망건

이익정의 망건(그림 3)은 1999년 12월 20일 전주(全州) 이씨(李氏) 정간공(靖簡公) 휘(諱) 익정(益 疜: 1699-1782)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본 유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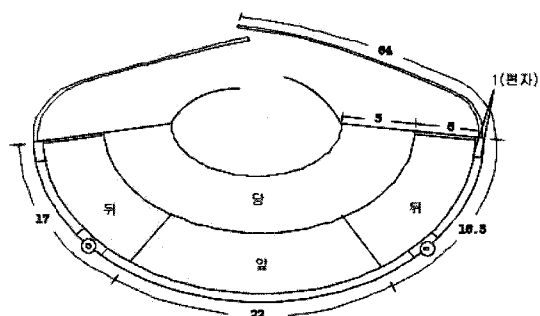
출토된 대부분의 망건 유물이 직물로 제작된 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발표 당시 말총 망건으로 보고되었다.<sup>27)</sup> 이와 같이 직물이 아닌 말총으로 보고된 출토 망건유물로는 능창군(綾昌君, 1599~1615)의 망건<sup>28)</sup>이 있다(그림 4). 또한 이 망건은 실제 시신의 상투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 당시의 착용법과 수발형태에 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1) 망건의 소재

본 망건에 사용된 소재의 일부를 채취해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측면과 단면을 관찰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삼각단면과 매끄러운 측면의 형태가 관찰되어 견사로 확인되었다. 반면 1800년대 마미망건에서 탈락된 말총 시료를 채집해 측면과 단면을 관찰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이것의 단면은 원형이며 측면에서 말총 고유의 스케일을 관찰할 수 있었다.

### 2) 망건의 구조

보편적으로 망건은 상부의 줄라매는 부분인 '당'과 하부를 매는 '편자', 그리고 전면의 그물처럼 엮은 '앞'과 후면의 뒤통수 닿는 부분인 '뒤'로 구성된다.<sup>29)</sup> '당'의 끝부분은 골로 되어있고 머리를 감싸 줄라매 상투에 잡아매고, 편자의 귀 뒤에 해당하는 곳에 관자를 단다.



<그림 7> 이익정 망건의 구조(단위: cm)

본 유물의 기본구조는 전체적으로 보통의 망건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喪禮諺解』에 도해된 망건<sup>30)</sup>(그림 1)과 기본적인 구조가 같다.

본 망건의 형태는 <그림 7>과 같으며 각 구성부분

의 조직과 기본적인 특징은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다. 각 구성부분의 기법은 서양의 레이스 제작 기법과 유사하므로 기법과 그 명칭을 레이스 기법과 비교·조사하여 기록하였다.

편자(그림 8)은 폭 1cm의 평직으로 매우 조밀하게 짜져 있다. 편자는 망건의 시작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베틀의 간이형이라 할 수 있는 편자들로 판단.<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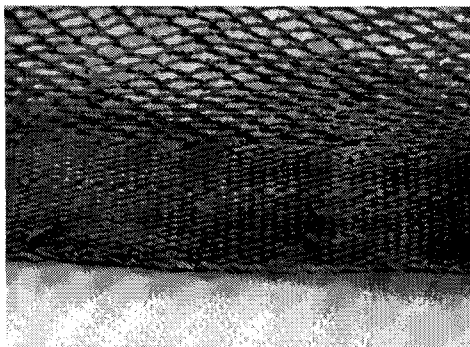
편자부분이 완성되면 앞과 뒤, 설주를 짜는데 이를 '바닥뜨기'라고 한다. 본 망건의 '앞'과 '뒤' 부분은 모두 連攪방법(intertwisting)<sup>32)</sup>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앞'(그림 9)과 '뒤'(그림 10)부분의 엮여진 방법은 simple linking(type 1로 함)로 엮여져 있다.<sup>33)</sup> 그러나 두 부분은 외견상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데 '앞'부분이 일정한 간격으로 균일하게 엮여져 있는 반면 '뒤'부분도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인 simple linking(type 2로 함)이지만 간격의 변화를 주어 마치 두 가닥의 줄이 '앞'부분과 같은 모양을 갖도록 변화된 엮음방식으로 되어 '앞'보다 더 조밀하게 짜져 있다. 이것은 '앞'과 '뒤'가 모두 <그림 11>과 같이 'R-L/S direction'으로 엮여졌으며<sup>34)</sup> 밀도는 '앞'이 18 repeat unit/5cm로 '뒤'의 밀도가 8.7 repeat unit/5cm인 것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 조밀하였다. 이것은 현재 제작되고 있는 망건의 앞뒤의 밀도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과 뒤를 구분 짓고 실을 이을 수 있도록 매듭을 지으면서 제작하는 부분이 설주이다.<sup>35)</sup> <그림 12>과 같이 설주와 편자에 인접한 앞과 뒤의 밀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 좀 더 조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설주의 상단에서 실이 매듭을 맺어 새로운 실을 연결해 엮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앞과 뒤를 엮은 후 상단의 마감부분의 밀도가 매우 조밀하게 짜져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그림 12의 점선) 이는 망건의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이와 함께 '당'을 엮기 위해 필요한 조밀한 바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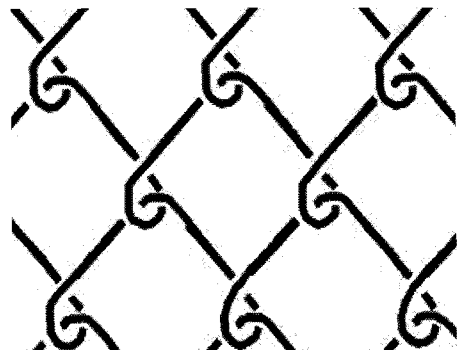
'당'은 이마를 지나 정수리에 이르는 부분을 감싸는 부분으로 그 특성상 가장 큰 신축성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당줄을 당겨 상투와 연결되는 부분이다(그림 13, 14). 이를 위해 '당'의 조직은 '앞'과 '뒤'의

〈표 4〉 이익정 망건의 부분별 구성 내용

구성부분	구성	크기(길이*너비/cm)	밀도(경*위/cm)
편자	plain weave	55.5*6	40*13
앞	simple linking (type 1)	22*6	-
뒤	simple linking (type 2)	16.5(17)*6	-
당줄	simple looped coiling	55.5*5	-
당줄	2-ply yarn	-	-
끈	twill weave	6*0.5	-
관자	-	2.2*0.5	-



〈그림 8〉 이익정 망건의 편자(左)와 그 조직(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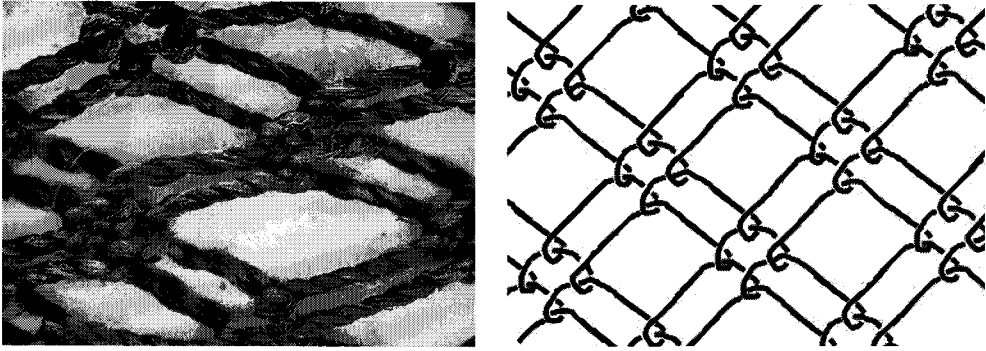


〈그림 9〉 '앞'의 조직(左)과 모식도(右) -(interlinking 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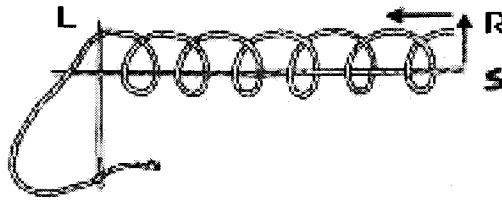
연연방법과는 다른 simple looped coiling〈그림 15〉으로 제작되었다. 이것은 이합연사 2가닥을 사용하고 있으며 당줄에 꼴을 만들고 이 당줄을 상투와 연결해 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16〉.

그 외 망건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해 묶는 끈〈그림 17〉과 '뒤'의 마감을 싸준 선단〈그림 18〉은 7매 능직물〈그림 19〉로 구성되어 있다. 당줄은 꼬임이 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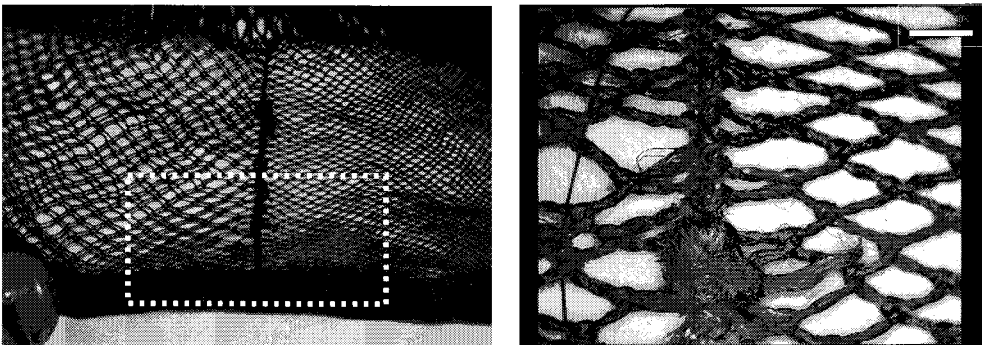
견사 2가닥을 합사해 꼬아 사용하고 있다〈그림 20〉. 관자는 설주에서 약 2cm정도 떨어진 '뒤' 부분의 편자에 끈과 같은 직물을 덧대고 그 위에 부착되어 있다〈그림 21〉. 또한 각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부는 조밀하게 해 내구성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망건 전체를 검은 색으로 칠 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 망건은 평상시 사용했던 것과 습용으로 제작된 것



〈그림 10〉 '뒤'의 조직(左)과 모식도(右) -(interlinking type 2)



〈그림 11〉 Simple linking(R-L/S direction)



〈그림 12〉 설주(左)와 안쪽의 확대 사진(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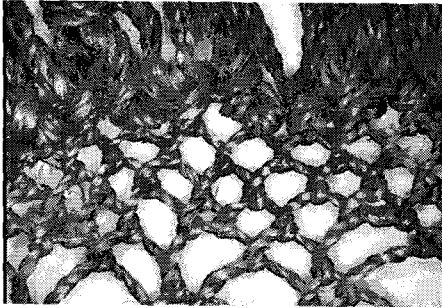
모두 짙은 색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망건<sup>36)</sup>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너비가 7~8cm 내외이며 길이가 약 55~60cm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비교해 본 유물은 너비가 약 12cm이며 길이가 약 55cm로 머리를 감싸는 '당'부분이 매우 넓고 신축성이 큰 조직으로 되어있어 머리를 감싸기에 매우 편리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 망건이 이마부분을 주로

감싸 매는데 반해 본 유물은 머리를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본 망건의 구조와 구성방식이 일반적인 馬尾網巾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망건은 그 재료에 관계없이 구조와 구성방식이 비교적 일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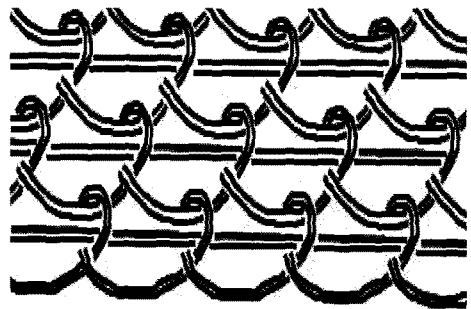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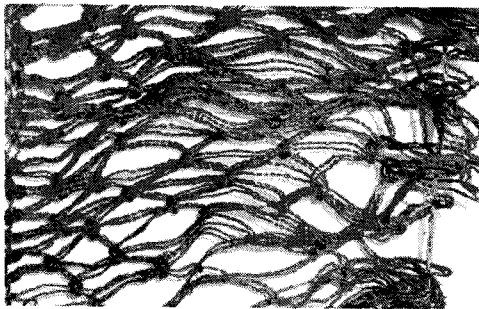




〈그림 13〉 바닥과 당의 연결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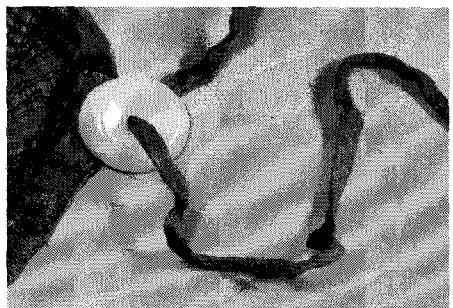
〈그림 14〉 당



〈그림 15〉 당의 조직과 모식도(simple looped coi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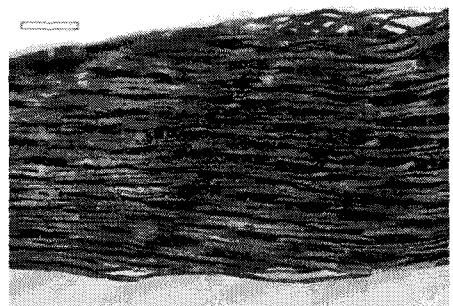
〈그림 16〉 당골, 당줄과 상투의 연결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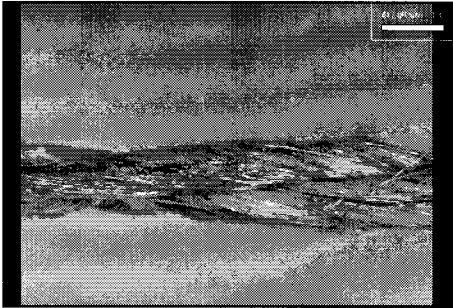
〈그림 17〉 관자와 망건 끈



〈그림 18〉 '뒤'부분의 선단



〈그림 19〉 망건 끈의 조직



〈그림 20〉 당줄



〈그림 21〉 관자의 부착 모습

### Ⅲ. 결론

본고는 서울에서 출토된 이익정 망건의 소재와 구성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유물은 기존에 그 구성소재가 말총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 견사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로 그동안 문헌기록으로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絲結網巾'이 확인되었다. 이 망건은 예서 등에 기록된 것과 같이 수의용 망건이 직물로 만들었음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견사로 엮어 제작한 것으로 더욱이 옥관자가 부착된 점 등의 사실로 묘주가 평소 사용했던 망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상례시에는 포망건을 사용한다는 예서의 기록과 실제 출토된 망건이 능창군 망건을 제외하고 모두 포망건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본 망건은 조선시대 망건이 말총과 인모 뿐 아니라 견사로도 제작되었다는 것을 실증하며 상례시에 포망건 외에 평소 착용했던 것을 사용했다는 것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망건의 구성방식은 連撚방법(intertwisting)으로 각 구성부분 중 '앞'과 '뒤'는 simple linking으로 제작되었고, '당'은 looped coiling으로 제작되었음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당'부분의 구성법과 각 부분의 크기를 제외하면 보편적인 망건과 유사하다. '당'의 조직은 본 망건이 마미망건과는 다른 특징, 즉 당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폭면이 큰 정수리부분을 감싸기 위한 큰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구성적 특징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1) 內閣記錄局官報課 제214호 “國服이身에在히니衣冠은國服期限前에仍舊하야白色 을用홈 一 網巾은廢止홈 一 衣服制度는外國制를採用하야도無妨홈”.
- 2) 유희경, 김문자 (2001).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 225.
- 3) 三才圖會, 天下改易胡風。乃以絲結網。以束其髮。名曰網巾。
- 4) 蚓菴瑣語: 網巾之制。創自明太祖。微行神樂觀。見道士以繭絲結小網。問以何爲。曰。用以約髮。網口以帛作邊。多邊字。邊字兩幅稍後。綴二小圈。用金玉或銅錫爲之。
- 5) 앞의 책, 網巾。初以繭絲。至萬曆間。始以落髮馬鬃代絲。我東亦從其制。而今不可考。究其本則即古縱制也。
- 6) 朝鮮王朝實錄 世宗 2年 (1420년), 贈使臣鍍金小象佛二軀、鑰匙二雙、鑰筋四十二雙、鑰匙二、茶匙二、馬尾網巾二。
- 7) 朝鮮王朝實錄 成宗 22年 (1491년), 內出會御網巾, 令尙衣院修補, 多有破處。 御衣白領亦垢汚, 儉素類此。
- 8) 朝鮮王朝實錄 仁祖 21年 (1643년), 宮僚諫之不從, 遂令徵求白蠟、網巾於濟州, 至是, 上始知之, 有此教。
- 9) 喪禮諺解, 국립중앙도서관, 古5213-138.
- 10) 靑莊館全書: 案東國亦應隨中國用絲用鬃。而不可攷。今只用馬尾。屍用黑緞代網。喪人以布代之。凡馬尾網巾。兩端係處及着圈處。用黑緞半。寸寸縫飾。有重服者。以白易。
- 11) 五禮儀 代用皂羅.
- 12) 四禮使覽 喪禮.
- 13) 四禮使覽 士冠禮.
- 14) 國朝喪禮補編. 用鴉青無紋紗爲之下 端兩角安冒緞繫上端 髮積穿孔用紫甲絲紉 以縮之用泥銀畫雙圈.
- 15) 정말숙 (2005). 조선시대 왕의 염습의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4-40.
- 16)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묘 출토부식 조사보고서, p. 69.
- 17) 대전시청 (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연산 송씨 출토부식, p. 251.

- 18) 경기도박물관 (2008). 출토복식명품선, p. 185.
- 19)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17세기 문관 옷 이야기, p. 105.
- 2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최원립장군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무관의 차림새, pp. 136-138.
- 21) 박성실 (1996). 화성 구포리 출토 복식 소고, 한국복식, 14, p. 68.
- 22) 국립민속박물관 (2004). 남오성 묘 축토복식, pp. 130-131.
- 23) 석주선 (1983).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실태, 한국복식, 1, p. 28.
- 24) 박성실 (2004). 서울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밀창군 복식 고찰, 한국복식, 22, p. 94.
- 25) 고부자 (2001).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1699~1782) 유물 고찰, 한국복식, 19, p. 125.
- 26) 박성실 (1994). 천안출토 풍산홍씨 유물소고, 한국복식, 12, p. 124.
- 27) 고부자, 앞의 책, p. 125.
- 28) 경기도박물관 (2008).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p. 85.
- 29) 국립중앙박물관 (1988). 韓國의 美, p. 139.
- 30) 國朝喪禮補編.
- 31) 장경희 (2004).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 경인문화사, p. 69.
- 32) 禹範植 (1972). 織物組織學, 文運堂, p. 2.
- 33) Annemarie Seiler-Baldinger (1994). TEXTILES-A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p. 11.
- 34) Pat Earnshaw (2006). NEEDLELACE, Smithsonian, p. 18.
- 35) 장경희, 앞의 책, p. 73.
- 3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약 18C~20C의 전세 망건 유물로 총 16점을 대상으로 조사함.